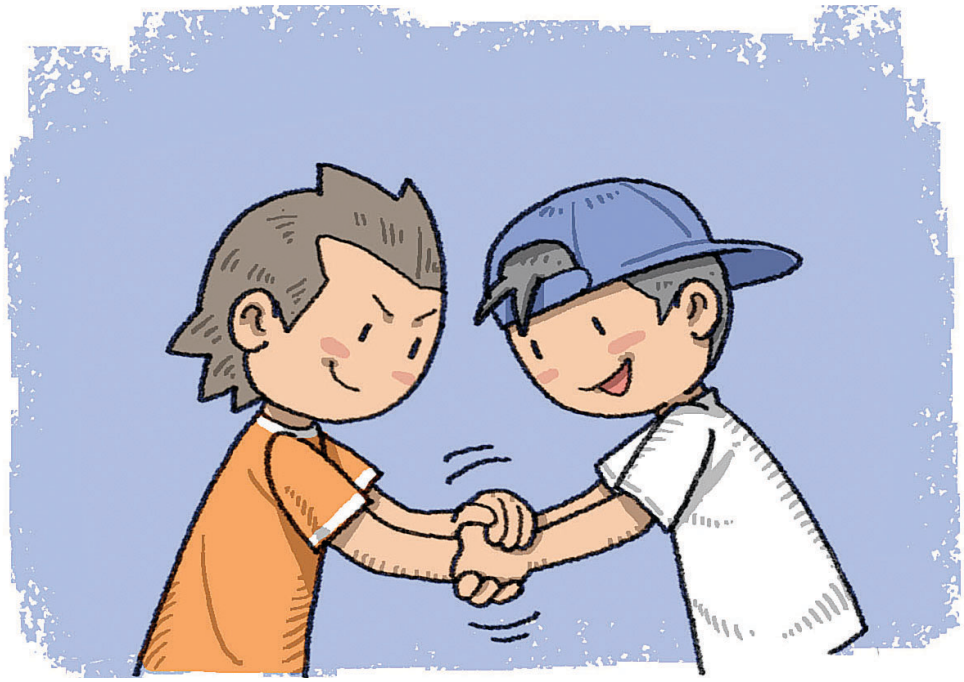


친구를 위해 지켜야할 일



나는 친구를 속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겠어요

I will not trick my friends or be mean to them.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경기를 할 때 심판의 눈을 속여서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는 행동입니다.

특히 선수들의 몸이 자주 부딪치는 운동경기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심판의 눈을 피해 툭하면 넘어지고, 날아가고, 다쳐서 아픈 척을 합니다. 마치 할리우드 배우들이 연기를 하듯, 선수들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그러나 할리우드 액션은 연기가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심판과 팬과 상대편 선수를 속이는 일입니다. 할리우드 액션 때문에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졌다면 화가 날 일입니다. 할리우드 액션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심판에게까지 화를 퍼붓는 열성팬도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은 이렇게 불쾌한 일입니다. 운동경기에서도

그러한데 만약 아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다면, 그로 인해 손해라도 입게 된다면 어떨까요?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속임수는 이렇듯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속임수를 쓰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 친구에게 속임을 당했거나 속임수를 써 본 일이 있나요? 그분이 어땠나요?
- *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는 친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멋진 친구가 되겠어요

I will be there for my friends when they need my help.

파리 남쪽에 있는 바르비종은 숲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조용하고 풍경이 아름다워서 이곳을 무대로 활동하는 화가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바르비종에서 활동하며 풍경과 농민의 생활을 그린 화가들을 '바르비종파'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밀레(Millet, 1814~1875년)가 바르비종파의 대표적 화가입니다. 밀레는 「만종」, 「이삭줍기」 등의 명작을 남겼지만 당시에는 큰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림을 사는 귀족들이 밀레의 농부 그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

다. 밀레가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을 때 친구이자 동료 화가인 테오도르 루소(Theodore Rouss, 1812~1867년)가 나섰습니다. 루소는 밀레의 그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한동안 밀레는 생활고에서 벗어나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밀레의 그림도 조금씩 알려졌고 가난에서 점차 벗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레는 루소의 집을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사갔던 자기의 그림이 루소의 집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소는 밀레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잊지도 않은 사람을 내세워서 그림을 샀던 것입니다. 루소의 배려와 멋진 우정은 밀레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는 데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 * 여러분이 밀레라면 루소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 *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도와준 친구가 있나요?
- * 친구 때문에 감동한 적은 언제인가요?



친구의 좋은 점을 배우겠어요

I will learn from my friends good characteristics.

연암 박지원(1737~1805년)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훌륭한 글을 많이 남긴 문학가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학문이 높았지만 벼슬에 나갈 생각이 없고 친구들과 책 읽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연암이 경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에는 친구에 대한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인연이야. 우리는 같은 시대에 태어나 만났고, 같은 민족이라 한 마을에 살고, 책을 읽는 선비로 만났으니 큰 인연이지. 그러나 주고받는 대화가 떳떳하지 못하고 답답하면 차라리 옛날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과 친구를 하는 게 낫겠네.”

연암은 진정한 친구는 마음이 잘 맞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연암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낮은 분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이덕무, 과학 지

식이 뛰어난 홍대용, 무술 실력이 뛰어난 백동수 같은 사람이 모두 연암의 친구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저 만나서 시간이나 보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 * 배울 게 많은 친구를 사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 여러분은 친구의 어떤 점을 배우고 싶은가요?
- *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떻게 비칠지 말해 보아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화엄경 논강 (華嚴經 論講)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스님의 진귀론으로 통합 논강을 합니다.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1년차)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2년차)

진귀스님의 화엄경 책은 「붓다북」이나 「화엄경강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우리는행 1005-002-700714(화엄경강원)

화엄경은?

- 한국 불교 실천수행의 주류는 선 이요, 이 선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 곧 화엄사상이다.
- 화엄사상의 근간은 선정삼매를 바탕으로 하며
- 화엄경은 세존께서 해인삼매에 드시어 증명하시고 문수보살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면서 각 설주 보살들께서 깨달은 경계를 설한 경전이기에 수행하는 모든이들은 화엄경을 수행나침판으로 삼아야만 부처님의 법맥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자신들의 수행법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을 것이다.
-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불교 수행현실은 세속적 어려움 못지 않게 일부 소수의 수행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행자들은 각종 수행 고난과 병통 그리고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 하고 있다.
- 이러한 오락약세에 화엄경은 수행자들에게 감로수와 같음에도 10중 9은 화엄경을 멀리하고 있고 오래 전 대교과에서 잠깐 본게 전부 다인게 한국 수행자들의 현실이렇게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 출가 수행자나 재가 수행자 중, 기 인연되어 화엄경을 항상 가까이 두고 선교쌍수하는 수행자 분들은 혹 원생신으로 이 땅에 오신분이거나 선근공덕이 수승하여 부처님으로 부터 곧 수기를 받을 수행자 일 것이다.

교자진귀

화엄경 강원 : 문의 1899~9532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